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1995년도 표어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생활지침 ☉

- 1.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주를 위하여 섬기는 교회가 되자
- 2. 사랑과 감사와 기쁨으로 일하는 교회가 되자
- 3.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전(殿)을 건축하자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 517-7651 ~ 5    팩스 / 512-1225

### 민족복음화를 위한

## 농촌전도단 파송

7월 31일(월) ~ 8월 3일(목), 충남 천안의 용정교회

전도위원회에서는 오는 7월 31일(월)부터 8월 3일(목) 까지 3박 4일간 충남 천안군 용정리에 있는 용정교회로 전도단을 파송한다. 전도단은 축호전도팀, 여름성경학교 진행팀, 의료봉사팀, 근로봉사팀으로 나뉘어 전도 및 봉사활동을 하게 된다.

를 드림으로써 시작하여 현재 장년 20명, 중고등학생이 15명, 어린이 30명이 출석하고 있으며, 지도 교역자로는 문성용 전도사가 시무하고 있다.

전도위원회에서는 이 일에 동참할 성도들을 기다리고 있다.

전도단이 파송될 용정리에는 140가구에 450명의 주민이 있다. 용정교회는 1986년에 가정집에서 예배

아울러 지역 주민과 나눌 비누, 치약, 수건 등 생활필수품들과 차량지원 및 운전 가능한 성도들의 지원도 기다리고있다.

전도위원회 위원장 박철훈 장로는 무엇보다도 온 성도의 기도의 후원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전도단원의 훈련과 전도활동의 구체적인 준비를 위해 전도단원 신청접수는 7월 12일, 수요 II부 예배 후로 마감하며 물품은 7월 30일까지 한다. 자세한 문의는 교구 담당목사나 전도위원회로 하면 된다.

▶ 사진으로 보는 '95 맥추감사절(지난 주일)

##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 성찬식 /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로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증인의 삶을 살것을 다짐하며 ... (I, II, III부 예배)

◀ 감사의 찬양 / 정성껏 준비한 입술의 열매로서 하나님께 감사를! (찬양예배 시 - 초등부, 유치부, 탁아부 찬양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사편 50편 23절)

창세기 강해



# 아브라함의 죽음

(25장 1 ~ 11절)

이종운 목사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죽음을 죽는가가 중요합니다. 예수 안에서 맞는 죽음은 마치 운동경기를 하다가 자기에게 주어진 경주를 다 마치고 경주에 이긴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서는 영광스러운 순간이 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죽음은 하나님 앞에서 복된 죽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일백 칠십 오세라 그가 수가 높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진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7-8절).

그의 죽음은 그의 생애 전체가 잘 익은 곡식단처럼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임을 보여 줍니다. 베드로후서 1장 5-8절에는 성도의 생애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

아브라함의 생애는 이러한 열매들로 가득하였습니다.

### 1. 믿음에 덕을 더한 삶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의하여 덕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기서 '덕'이란 하나님 앞에서 선을 쌓는 것을 말합니다. 조카 롯의 종들과 자신의 종들이 싸우는 것을 보았을 때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부여하고 땅을 나누어 줍니다. 롯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자신의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전쟁에 승리하여 롯을 구해 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벨기세벱에게 십일조를 바치고 전리품은 하나도 취하지 않고 소돔왕에게 모두 돌려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닮아 덕을 쌓았으며 하나님께서 받아야 할 영광을 자신이 찬탈하지 않았습니다.

### 2. 덕에 지식을 쌓아간 삶

아브라함은 그의 생애동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점점 키워왔습니다. 미지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전지전능하시며 사랑 많으신 분이신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순종하였고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점점 더 깊게 맛보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처럼 직

접적으로 계시를 주시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말씀을 통해 우리의 나아갈 길을 알려 주시고 당신의 뜻을 계시해 주십니다. 날마다 성경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그 뜻을 순종함으로써 우리도 하나님을 체험하며 알아가는 지식에서 점점 자라가야 하겠습니다.

### 3. 지식에 절제를 더한 삶

절제는 성령의 아홉가지 열매(갈5:22-23) 중에 마지막 열매입니다. 절제란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며, 죄에 대한 욕심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절제는 수양을 쌓음으로써 할 수 있는 것이 못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때에만 이기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이 멸망할 것이라는 경고를 듣고 바로 무릎을 꿇어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소돔이 심판을 받아 불타오를 때에 항거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바라만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것과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내 뜻과 다르고 내 주장이 관철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일에 순복하는 것이 자기를 조절하고 절제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 4. 절제에 인내를 더한 삶

성도에게 주시는 마지막 가장 큰 복은 인내의 긴 터널의 끝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참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에 끝까지 인내한 사람입니다. 약속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 사흘길을 가는 동안 그의 마음이 변치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고 참고 또 참았던 것입니다. 그의 그와 같은 삶의 자세는 175년동안의 여러 행적에서 발견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진 사람은 꺾박도, 어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 5. 인내에 경건을 더한 삶

경건이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고 인내를 통해 경건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했습니다. 롯이 가족 관리와 목장일에 마음을 빼앗긴데 비해 아브라

함의 첫 관심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였습니다. 우리도 어린 아이가 엄마를 찾듯이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야 하겠습니다.

### 6. 경건에 형제 우애를 더한 삶

경건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운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그리고 성도와의 관계를 사랑으로 영위해 갑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의 중요한 덕성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 7.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한 삶

이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헌신도 사랑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산 모범적인 사랑의 삶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175세를 일기로 그의 열조에게로 돌아간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 우리에게 계시되었습니다.

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는 삶을 살기에 더욱 힘쓰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 순례자 컬럼 ✦

### 복으로 띄우는 편지

지척이 진리라던가. 무엇이 우리를 이토록 멀리 갈라놓았던가. 풍요로우면 무엇이며 행복해도 기쁨이 없는 것은 잃어버린 반쪽 까닭이리라.

아내를 남편에게서, 아들을 아버지에게서 빼앗아 간자가 누구며 그토록 긴 세월동안 한숨과 좌절 속에 빠지게 한 것이 무엇이었던가. 이데올로기의 허수아비도, 이기적인 탐욕의 찌꺼기도 이제는 훌러기는 강물의 물거품처럼 사라져가고 있지 않은가. 베를린 장벽도 무너졌고 브카레스트의 레닌 동상도 밧줄에 목이 매여 끌리어 내려진 지금, 그대는 무엇을 더 바라고 무엇을 더 얻겠다는 것인가.

두껍게 펼친 빙벽속에 갇히워 당장 풀려지지 않는다고 좌절치 말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겠다는 우리 주님의 약속 믿고 진리의 밝은 햇빛이 비쳐지는 한 언젠가는 녹아 무너질 날이 올 것을 믿고 우리 함께 쉬지 말고 기도하자.

은 해 여름, 우리교회 각 교회학교는 「변하는 세상, 변함없는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성경학교를 갖게 된다.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세상이 변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이치이다. 그러나 그때마다 사람의 가치관까지 변하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이다. 마음에 들면 신앙과는 무관하게 결혼하고 기분에 따라 헤어지는 일, 자녀들을 거리낌없이 버리는 일, 어른과 아이의 구별이 없게 된 일, 자기의 이익에 따라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원수가 되는 일, 정권이 교체되면 다시 쓰는 역사 책, 어제까지는 정설이던 학문 이론이 오늘은 허구가 되는 일 등 수많은 변화가 있다.

이에 따라 교회 내에도 종교 혼합주의, 종교 다원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뉴 에이지 사상 등이 침투해 신앙이 혼탁해져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되어 간다. 그러므로 분별력있는 어른들의 지도가 필요한데 비록 분별력이 조금 있다해도 해를 입을 것이 두려워 용기있게 말해주는 이들이 보기 힘들게 된 세

▶ '95 여름성경학교에 붙여

### “미래의 영적 지도자들을 바라보며”

조대영 (총동부 교사)

상이 되고 말았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분별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을까? 우리의 노력은 당연히 성경으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귀결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영원히 변함없으신 사랑과 인내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분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고 분명히 자신있게 말씀하셨다. 세세무궁토록 변함없는 성경을 통한 조명으로 세상을 옳게 분별하여 자기의 위치를 인식하며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물이 다 빠져버리는 것 같으나 시루의 콩나물에 또 한번 물을 주는 심정으로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예수님을 전하며 이번 성경학교를 계획하고 진행할 것이다.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

고 자녀들이 참여하도록 열심히 독려하는 부모님들의 용원과 눈물의 기도와 열심으로 준비는 교사들의 헌신이 조화를 이루면 이 모든 일의 결음은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멋진 성경학교가 될 것이다.

기쁨과 설렘으로 이번 여름성경학교를 기다린다. 우리 교회학교에 오종종 모이는 학생들은 미래에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영적 지도자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리고 변함없는 진리를 쫓기 위해 걸어갈 그들 장래의 순교자적 삶을 축복하며...



#### ▶ 답지하는 감사와 결단의 편지들 ▶

우리교회는 1995년도 지난 6개월 동안 천국시민 양성, 인민에게 진도, 반박한 자 구제라는 교회의 목표를 공형있게 이루기 위해 노력해왔다. 특별히 올해는 농어촌 교회의 재개발을 하고 기도회, 물질로 돕는 (100교회 운동)을 시판하였고, 방글라데시의 파키스탄교회의 목회자들을 초청하여 제 6차 김치신학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농촌교회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목회자들로부터 온 편지들을 요약하여 실는다.

계속하여 결심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과 이제까지의 일들을 돌아보며 겸손한 마음으로 더욱 열매가 열을 맺지않아야 할 것이다. 지극히 작은 우리의 노력이 많은 교회들로 확산되어 도시와 농어촌의 교회들이 협력하는 일이 점점 더 많아지고, 지구촌의 여러 교회들이 기도하는 일에 힘을 모으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 전라북도의 금성교회에서

## “생활비의 십분의 일을 산중교회의 선교비로 보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충만하심이 섬기시는 서울교회와 모든 분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귀 교회의 초청으로 서울 나드리(농어촌목회자초청세미나) 때에 서울교회의 모습을 직접 본 후로는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아직 예배당도 없이 세를 살고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일은 미룰 수 없다고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를 위한 일에 크게 헌신하는 것을 보며 놀랐습니다. 개인주의와 몰량주의가 교회 내에도 팽배한 작금의 현실에서, 서울교회의 이와 같은 일들은 여러교회에 크게 본이 되는 줄 믿고 이 일에 동참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께 머릿속여 감사를 드립니다.

농어촌교회의 어려운 현실은 농어촌이 교령화되고 생활 전체가 침체되어 젊은이들이 떠남으로 점차 자립할 기반을 상실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청년회의 운영이나 유치원, 유아원의 아이울음 소리가 그친지 10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40명의 교인 중 30명이 65세-90세의 노인입니다. 교회의 부흥이나 자립이

문제가 아니라 지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날이 멀지 않은 것이 농촌 교회들의 실상입니다.

저는 이곳에 17년 전에 부임하였습니다. 대부분 농어촌 목회자들이 그러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이곳에서 종신토록 일할 각오로 임했습니다. 목회자가 떠날 때마다 피멍든 상처를 움켜쥐고 눈시울을 적시는 농어촌 성도들의 모습을 도시교회에서는 어쩌면 상상도 못하실 것입니다. 그간 보다 나은 조건으로 부르는 손길이 적지 않았고, 다섯이나 되는 아이들의 원망 섞인 시선을 느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실력은 되지만 경제적인 여건상 전문학교를 보내야 할 때의 갈등도 무척 전지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이들도 저의 목회의 소신을 알고 존경을 표시하게까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난번 세미나에 참석하여 배운대로 어려운 형편이지만 생활비의 십일조를 떼어서 산중교회에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교회가 세를 살면서도 선교와 구제의 일을 미루지 않듯이 작게나마 지금부터라도 가장 중요한 선교의 일에 참여하는 것을 실천하기 위함입니다. 이 일에 계속해서 동참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뼈도 이곳에 묻을 각오로 목회의 사역에 임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1995년 6월 30일  
금성교회 목사 김 선 영 드림

### 파키스탄의 필라델피아교회에서

## “한국의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6월 8일 오후 9시 30분 이곳 카라치 공항에 무사히 도착했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김치세미나에 초청받아 많은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과 훌륭한 강의와 모임들을 통해 배운 것들을 인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김치세미나 기간동안 제가 받은 복과 신령한 경험들을 우리교회 교인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특히 새벽기도회를 이미 시작한 것과 다락방 모임을 통하여 영적 변화를 체험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우리들은 한국을 위해 기도하고 있으며, 특별히 하나님께서 남과 북을 하나로 만들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여러분의 지속적인 기도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파키스탄 교회가 크게 부흥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1995년 6월 19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조지 락가 목사

■ 답지하는 감사와 결단의 편지들 ■

### 파키스탄 선교현장에서

## “선교현장에서 세미나를 가질 수 있다면...”

세계복음화를 위한 제일의 과제는 교회들의 성장이고, 그 열쇠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있습니다. 아직도 이슬람의 사슬에 매여있는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에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많이 있기에 현지 지도자들이 진정으로 거듭나 신령한 무기로 무장하고 영적인 전투를 수행하도록 하는 일은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차제에 서울교회의 세계선교비전에 따른 김치신학세미나는 성도들의 적극적인 헌신과 효과적인 운영, 아름다운 봉사가 어울어져 여기에 참석한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 31명의 지도자들은 정말 많은 도전을 받고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를 맞보아 아는 계기가 되었고, 예배의 순서 하나 하나, 새벽기도회의 모습, 교회학교, 흥해작전과 같은 특별기도회의 모임, 산기도 등에서의 충격과 감회를 현지 목회에 적용하기 위해 고심하며 결단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순교적 헌신을 각오하였습니다. 참석자 모두에게는 평신도들의 자발적인 봉사활동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실천하며 섬기는 일이 어떠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된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김치 신학세미나가 선교 현장에서 이루어진다면 좀더 많은 사역자들이 참여하여 한국교회 성장의 영적인 비밀들을 나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모쪼록 이종운 목사님의 귀한 선교비전에 발맞추어 성도들의 희생적 헌신이 잘 뒷받침되어 교회의 더 큰 성장이 있기를 바랍니다. 1995년 6월 중순 파키스탄 선교사 김병교

### 파키스탄의 벨레교회에서

## “다락방 모임을 시작하려 합니다”

외국방문이 이번이 처음이었던 저에게 김치세미나는 한국과 한국에 복 주신 하나님을 알 수 있었던 기회였으며 무엇보다도 영적인 각성과 배움의 기회였습니다.

지난 6월 11일 주일에 우리교회에서 저는 김치세미나에서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 간증을 하였으며 김치세미나의 운영과 그 사랑과 후대해 주신 것들에 대해 이야기 하였습니다. 한국은 아름다웠고 한국인들은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사와 헌신을 아낌없이 해주신 여러분들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락방 모임을 우리교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혹시 영문으로 된 자료들을 비치하고있으시다면 받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교회 성도들의 안부를 전합니다. 주님의 복이 더욱 더 임하시기를 기원하며...

1995년 6월 28일, 아슬람 다니엘 목사

### ■ 목회자 동정 ■

· 이종운 목사는 7월 10일(월) 서울지검 검찰 신우회 월례 모임에서 설교한다.

### 방글라데시 다카교회에서

## “한국교회는 방글라데시 교회의 모델입니다”

김치세미나를 통해 영적각성과 교회성장에 관해 얻은 비전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요! 여러분들과의 복되었던 교제와 사랑 넘치는 접대에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김치세미나에서 배운 것을 저희 교회와 선교회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머지 않아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려 합니다. 이 모든 일에 한국교회는 우리 방글라데시 교회의 모델입니다.

-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 다락방 모임과 새벽기도회를 위해 (2) 모슬렘과 힌두교인들의 복음화를 위한 저와 우리 교회의 선교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3) 하나님께서 새로운 동역자를 보내주실 것과 방글라데시 교회개신사역에 복주시기를 ...

서울교회와 김치세미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1995년 6월 25일, 트리톤조이 물리크

### 방글라데시 칼란푸트교회에서

## “김치 동문끼리 월례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따뜻한 마음의 인사를 드립니다. 귀국 후 김치세미나에서 배운 것들을 저희의 정규적인 프로그램에 적용하여 실시하면서 이종운 목사님과 서울교회성도들을 항상 떠올리게 됩니다. 아울러 식탁에 놓여 있던 김치(김치)도 그렇군요.

제 6차 김치 신학세미나에 참석했던 방글라데시 목회자들은 동문회를 구성하고 매달 모임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이일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적 열정으로 전세계를 품에 안고 진행하는 김치신학세미나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힘입는 신실하고 헌신된 크리스찬이 열 명만 있다면 모든 나라들이 변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따라서 다른 나라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김치세미나가 지구촌이 변화하는 일에 크게 기여할 수 있리라 믿고 계속하여 기도하려 합니다.

수고해 주신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성도 여러분, 사진 찍어 주신 집사님, 운전해 주신 분, 특별히 부업에서 땀 흘리신 분들, 사모님... 모두들 너무나 귀한 분들입니다. 국내외의 많은 회합들에 참여해 보았지만 김치세미나가 최고였습니다. 강의실에서나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모두가 그러했습니다. 저희들은 여러분들을 본받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1995년 6월 20일, 제임스 할더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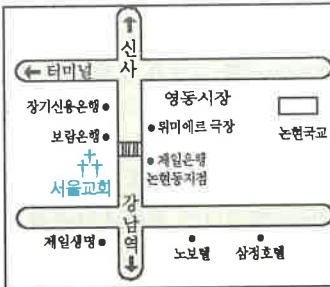
### ■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

-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경교실」 매주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 극동방송(HLKK 1188KHz)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 대전 극동방송(HLAD FM 93.3MHz) 「늘푸른 초장」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 6시50분
- 아시아방송(HLAZ 1566KHz) 「주일설교」 매주 일요일 오전 8시 30분 ~ 9시
- 「주일설교 재방송」 매주 화요일 오전 4시 20분 ~ 4시 50분

###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 교회위치



## 서울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농어촌 교회의 자립과 민족복음화를 위하여
2. 여름성경학교를 은혜 중에 준비할 수 있도록
3.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4.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 교회들을 위하여